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연대경제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기조연설

2014. 11. 18

파스칼 반 그리쉬이센(Pascal van Griethuysen)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지속가능개발프로그램’ 팀장 /

유엔기구간사회연대경제특별전담반(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SE)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송경용 조직위원회장님,

그리고 명망 높은 참가자 여러분,

먼저, 제게 오늘 이 자리의 기조연설을 청해주신 서울특별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은 저와, 제가 대표하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모두에게 큰 영광입니다. 또 제가 서울이라는 경이로운 도시에 오고 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장소에 모인 전 세계의 지식과 전문기술, 노하우의 높은 수준을 보며 실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청중 앞에서 제 견해를 밝히게 된 것도 정말이지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통해 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 유엔기구간사회연대경제특별전담반이 사회연대경제(SSE)를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환경파괴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명쾌한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밝히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실천적 방안에서 두드러지는 3가지 특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첫째, 문화적, 자연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 둘째, 사회연대경제 활동은 주로든 전적으로든 이윤을 중심에 두지 않으며, 가치를 중심에 둡니다.
- . 셋째, 사회연대경제 방안에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확대를 요구할 때 동반되는 갈등과 문제를 언급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맥락 내재성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는 단절되어 있는 금융관행이 실물경제, 인간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절이 자본주의의 심장, 즉 사유재산이라는 핵심 제도에 내재해 있음을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생각해보십시오. 공식 재산권은 자신이 대표하는 자산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법적 권원(權原)의 생성에 그 기반을 둡니다. 이렇게 맥락과 분리되어 있으니 상품이 아무런 물리적 교환 없이 언제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산이 금융활동을 통해 자본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공식 경제에서는, 돈만이 중요하며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의 가치는 얼마나 금전적인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공식적인 화폐경제도 사회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 의사에 따라, 어떤 외적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느냐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공식적인 화폐경제와 극히 대조적으로 실제의, 아주 구체적인 맥락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하우와 작업능력 같은 구체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진짜 사람, 실제 욕구와 제약, 기대감을 갖고 있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따르면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동원하여 목표를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경제에서는 사람

과 가치가 중요하며 경제조직들이 무엇보다 사람 자체를 위해 일합니다.

돈이라는 추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회연대경제 행위자들은 사회연대경제의 다른 측면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다양하고 종종 복잡하기도 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결정이 단기적 및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사회연대경제 행위자들은 주위 환경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행위와 관련하여 거시적 접근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각의 대안이 지닌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춥니다. 환경 요소도 종종 함께 고려합니다. 게다가 결정 자체도 수익성이나 성장 같은 단 하나의 목표 대신 여러 가지가 결합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의 실천적 방안이 경제 활력과 사회보호 및 환경보호, 사회정치적 권한 부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거시적 방법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가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로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듯 보이는 것입니다.

가치 중심

인간사회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애초부터 협력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행동하는 개인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성과를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나 생산자가 일자리를 확보하고,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뭉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자조집단에 모이고 지방의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다수로 하여금 사회연대경제 행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게 하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집단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한 것도 바로 이 동기라고 확신합니다.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생물학적 생존에서 서로 다른 생물종 간의 상리공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생물학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문화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가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것이 호혜, 공평, 무엇보다도 연대 같은 가치에 중심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연대는 협력 행위가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연대는 사회적 불안, 갈등, 혼란을 낳는 사회적 배제와 좌절을 방지함으로써 성숙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마치 시멘트와 같은 규범입니다. 게다가 널리 보고된 것처럼, 사회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보다 환경 친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소비, 과시적 소비, 갈등에 낭비되는 자원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명백합니다. 개발 모델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사회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자들로 하여금 혜택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에 떠넘길 것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제논리, 부의 집중을 낳는 누적 과정, 사회적 배제, 환경파괴와 대비될 수 있습니다.

변화 주도적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사회연대경제는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여타 공동소유 환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여적 의사 결정과 자주관리인데요,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참여적 의사결정과 자주관리를 기초로 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 모델을 지지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자원과 임여분을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 통합적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동원하고 재분배하려 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실천적 방안 상당수가 수입 창출 활동과 관계되지만 이윤은 지역 안에서, 또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이나 공정무역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실천적 방안이 자연자본의 보존 및 복원과 양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은 금융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저축 제도, 보완화폐, 참여예산제도 같은 다양한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대안은 보통 지역 수준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할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이런 대안을 비롯한 여타 사회연대경제의 실천방안은 더 안정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통화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두는 이윤

극대화와 기업 주도의 접근법과 대조적인 개발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진정 사회연대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보여줍니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사회연대경제에 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3년 5월 사회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맡는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Potential and Limits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국제회의의 직접적인 성과 중 하나가 2013년 9월, 유엔기구간사회연대경제특별전담반이 조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의 20 개에 달하는 유엔기구 및 정부 간 조직과 국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상부 협회 4개가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함께 이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특별전담반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제도 환경과 정책 환경을 확립하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노력과 파트너십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특별전담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전 열리는 기획 세션에 참가하셔도 좋습니다.

세계 전역의 경험을 검토하고 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소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마도 유엔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실물경제, 즉 글로벌 수준에는 결여된 친밀한 관계와 가까이 있습니다. 도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발전과 각종 정책이 낳은 이점과 해악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업, 사회적 배제, 도시환경 악화를 해결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바로 이런 이유로 사회연대경제를 고용증대, 소상공인 진흥, 환경 개선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정책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곳도 지역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귀빈 여러분, 사회연대경제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사

사회연대경제는 연대, 공평, 민주적 거버넌스 같은 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킵니다. 이처럼 사회연대경제 고유의 통합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지구환경에 민감한 접근법은 오늘날 개발에서 비롯된 시급한 문제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근법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장려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연대경제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사회연대경제의 실천적 방안이 미시적 수준, 프로젝트 수준, 지역사회 수준을 넘어 지방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전 세계로 증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각국 정부와 국제 개발기구들이 사회연대경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사회연대경제의 규모를 키우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연대경제가 확대되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행위자, 시장과 더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확대와 연계 덕에 필요한 자원, 시장,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사회연대경제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공평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고, 더 위계적인 반면 덜 민주적이고 덜 수용적인 제도적 문화 또는 관리 문화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기업들이 시장 및 국가기관과 가까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핵심가치와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연대경제 프로그램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질을 활용할 최상의 방법은 사회연대경제 행위자 스스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관례,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행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부로부터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 유엔기구간사회연대경제특별전담반을 대신해 이런 변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집합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